1982년 6월 14일 월요일 부산일보 8면

山 日 부 1982년6월14일 月요일(음력 윤4월23일 戊辰)

美문화원 事件 첫 公判

釜山地法 被告人 16명 全員출정…인정신문

엄중한 警戒속 護送…입정

檢事 6명이 公訴狀 낭독

池주교등 敎界서 방청, 內外信기자 70명 取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安文泰부장판사와 주심 申鳳徹판사·배석 洪光植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부산지검 공안부 金內·외신기자 70여명이 취재에 나섰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장 낭독·金炳燁피고인에 대한 의식화 학습사항 검찰신문과 변호사 반대신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은 6명의 검사가 차례로 날독한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은 현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체제로 변혁하기위해 指揮統制부 비호아래 천주교原州교육원 등에서 좌경·반미의식화 학습을 주도 또는 수업하며 北傀노선에 동조하고 반미사상 고취·반정부시위선동·대규모소요 유발을 위해 3월18일 부산문화원에 방화하면서 불은 유인물을 살포했고 반국가사범을 비호 은닉했다』고 피고인별 범행사실을 열거했다.

검찰은 이날 모두 13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인정신문에 들어가기 전 방청석을 둘러보며 아는 얼굴을 찾는 듯 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지난4월29일 기소되어 지난5월24일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연기됐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의 가족과 종교인등 방청권을 받은 100여명이 나와 방청했으며 관내에는 부산지검 공안부 金炳燁부장검사와 朴炳國·張昌浩·高承佃검사, 지원근무 중인 高光哲·李以任검사등 6명의 검사가 참여했고 옥룡합변호사회 소속 李敦明·洪性宇·裵仁基변호사, 부산변호사회 소속 李興赫·鄭九河·趙鏡來·李根伯·柳承默·盧武鉉·金光一변호사 등 모두 1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공판은 피고인의 가족과 종교인등 방청권을 받은 100여명이 나와 방청했으며 관내에는 부산지검 공안부 金內·외신기자 70여명이 취재에 나섰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장 낭독·金炳燁피고인에 대한 의식화 학습사항 검찰신문과 변호사 반대신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은 6명의 검사가 차례로 날독한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은 현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체제로 변혁하기위해 指揮統制부 비호아래 천주교原州교육원 등에서 좌경·반미의식화 학습을 주도 또는 수업하며 北傀노선에 동조하고 반미사상 고취·반정부시위선동·대규모소요 유발을 위해 3월18일 부산문화원에 방화하면서 불은 유인물을 살포했고 반국가사범을 비호 은닉했다』고 피고인별 범행사실을 열거했다.

검찰은 이날 모두 13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을 낭독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의 질서유지와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를 이유로 취재기자들의 사진촬영신청을 불허했다.

피고인들은 지난4월29일 기소되어 지난5월24일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연기됐었다.

이날 공판은 매우 원활하게 진행됐으며 오전10시15분부터 오후3시까지 5시간에 걸쳐 담당검사별로 논고요지와 일부 투입된 증거물에 대한 공판이 계속 열려 7월말 결심, 8월초 1심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피의자 15명은 이날 상오8시40분께 부산5가 1043호 최수호송 버스편으로 엄중한 경계가 펴진 부산지법에 도착했다.

푸른수의차림의 피의자들은 각자 한사람씩의 교도관과함께 차에서내려 일단 구치감에 수감됐다가 9시33분 1호법정에 입정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釜山교구 李基宣신부·慶州교구 尹公熙주교·光州교구 金洪三주교등의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이날상오9시45분께 전남1가1004호 레코드문화숙용차를 타고 법원에도착, 바로 법정에 들어섰다. 池주교등은 보진료의 질문에 아부련 대답도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착석했다.

재판장은 이날 상오10시 1호법정에 입정, 피고인 16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 제1차 공판이 14일상오10시 부산지법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기소된 金炳燁피고인(32) 등 15명과 불구속기소된 李昌馥피고인(43) 등 16명 전원이 출정했다(별단별항).

◇美문화원 방화사건 피고인 文富赫이 엄중한 경계속에 입정하고 있다◇

방화사건 관련피고인및 적용법규

성명	연령	직업	적용법규	비고
金鉉燁	32	무직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	구속
文富赫	23	前神大3년제적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	구속
金恩淑	24	前神大3년제적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계엄법위반·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구속
柳承烈	20	嶺山大공대3년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구속
朴原植	19	前神大의예과2년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구속
崔忠彦	19	前神大의예과2년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구속
李美玉	20	前神大의예과2년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구속
崔賀純	20	嶺山大약대3년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구속
金志精	21	부산여대3년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구속
朴貞美	22	부산여대3년	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구속
張基植	39	신부	국가보안법·범인은닉	구속
文吉煥	36	原州교구성당관리인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	구속
金英愛	25	치악산서점경영	국가보안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범인도피	구속
許珍洙	24	한국기장전국청년회부회장	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구속
金春石	22	무직	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구속
李昌馥	43	한국교회사의회 회계	국가보안법위반·범인도피	불구속

시경각 철제정문을 굳게 내려 출입인들을 통제하자 정문밖에서는 피고인들의 가족으로 보이는 2백여명이 초조한 모습으로 서성거렸다.

이날 부산지법의 방청석에는 상오8시30분께 池주교 등 피고인의 아버지 池영욱씨(62)와 어머니 裵점남씨(52)등 10명이 제일 먼저 입장했으며 金志精 피고인의 어머니 鄭계선씨(52) 등 가족 3명은 9시께 법원에 나왔으나 방청권을 못구해 애를 태우다 뒤늦게 담당변호인의 주선으로 겨우 입장했다.

또 법원측은 이날 피고인 朴原植의 어머니 여선아씨(59)가 방청권을 받지 못한채 아들의 공판을 보겠다며 정문에서 울부짖자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다음 입장시켜 주었고 이사건의 유일한 희생자인 고盧健군의 어머니 洪복순씨(54)와 이모등 가족 3명도 공판개정 5분전에 법원에 나타나 『범인들의 표정이라도 보아야 죽은 아들의 소망을 풀겠다』며 방청을 희망해 입장이 허용됐다.

한편 이날 釜山지법에는 아침부터 美CBS방송·UPI·AP통신등 외신기자들과 국내보도진들이 몰려들어 취재에 열을 올렸다.